

■ 치과 칼럼

임플란트란?

<1225호에서 이어집니다.>

■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은 임플란트의 종류와 시술 방법 그리고 시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성공은 임플란트와 치조골(턱뼈)이 강하게 유착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 대사에 장애가 있는 환자나 일반적인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시술이 어렵거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집니다.

골 대사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당뇨병, 암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 및 방사선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등입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임신의 경우는 출산 후로 시술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 스스로 구강위생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유지 관리 측면에서 난점으로 작용합니다.

■ 위험한 시술일까요?

임플란트 시술은 전신마취보다는 국소마취 상태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인 치과 치료에 비해 더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위나 아래 대구치(어금니) 부위에서 드물게 상악동이나 하치조신경에 손상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시술 전 방사선 사진이나 C.T. 등의 보조 진단장치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므로 손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조직에 손상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술시의 통증은 거의 없으며 수술 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 치료기간은?

임플란트 시술은 크게 1차 수술, 2차 수술, 보철치료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사와 치료 계획이 수립되면 1차 수술을 시행합니다.



1차 수술은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식립하고 잇몸을 봉합하는 단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 2차 수술까지 임플란트와 치조골이 결합되도록 기다리는데 4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필요합니다. 2차 수술은 임플란트와 보철물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잇몸을 성형해주는 비교적 간단한 단계로 대부분 30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보철치료 단계는 2차 수술 후 3주 내지 4주 후에 시작되며 인상(본)을 떠서 보철물을 만들어 임플란트와 연결하는 단계로 2-3회 정도의 내원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끝납니다. 시술 후에는 다른 치과 치료와 마찬가지로 1년에 1-2회 정도의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잇몸뼈가 부족하다면?

잇몸뼈(치조골)의 양이 부족한 경우는 인공골 또는 자가골 이식술을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악동이나 하악관이 아주 근접해 있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상악동거상술 또는 하악관전위술 등의 수술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치과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고 임상적인 검사를 통해 치조골의 양과 상악동 또는 하악관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교육

‘목표 대학’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대입 시즌이 다가왔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먼저 목표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목표 대학을 선택할 때는 먼저 자신의 GPA와 SAT, ACT 등 표준화 점수를 포함한 아카데믹 레코드를 비롯해, 전공, 학비 부담 가능성 여부, 특별활동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 www.tepi.kr)가 목표 대학 선택에 꼭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1. 학교 명성에 집착하지 마라.

말은 쉬운 데 실행하기 어렵다. 한국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는 대학은 대부분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학 아니면 대형 주립대학들이다. 학생의 성적이 조금만 좋으면 아이비리그를 목표대학으로 정하고, 성적이 조금 낮으면 명문 대형 주립대학을 목표 학교로 선택한다.

미국에는 4년제 사립대학이 무려 2,800여 개나 된다. 그런데 한국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학의 폭은 매우 좁다. 주립대학 가운데서도 몇 개 대학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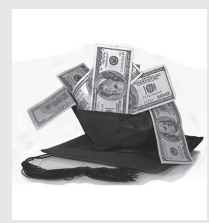
2. 대학 순위에 집착하지 마라

유에스뉴스가 해마다 내놓는 대학 순위는 대학 선택에 참고 사항일 뿐이다. 많은 대학들은 유에스뉴스에 랭킹이 올라가야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랭킹을 올리기 위

해 자료를 허위로 내놓거나 조작을 일삼기도 한다.

좋은 대학은 내게 맞는 대학이다. 내가 좋아하는 전공을 4년 동안 잘 배우고 나와서 사회에서 높은 연봉에 보람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연봉 랭킹은 대학 랭킹이 아니다. 요즘에는 대학 학부로 끝내지 않고 대학원 석사까지 가는 학생들이 많다. 멀리 내다보고 대학을 정하라.

3. 학비를 고려하라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살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내가 좋은

성적을 갖고 명문 대학에 합격해도 학비를 조달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가?’ 이다. 학비를 부담할 수 없으면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보조/장학금을 받거나, 학비가 저렴한 대학에 가거나,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4. 전공 랭킹에 얽매지 마라


기본적으로 학부에서 전공 랭킹은 의미가 별로 없다. 전공 랭킹은 대학원 석사 이상에서 해당된다. 다만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있는가는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Computer science가 어느 단과대학에 소속돼 있는가는 중요하다. 어느 대학은 엔지니어링 칼리지, 즉 공과대학 안에 있기도 하고, 어느 대학은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에 있기도 하다. 공과대학 안에 있으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	--	------------------	--